



#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4월 3일 사순 5주일 · 다해 · 자색

제57-14호

## 그리스도인 - 삶의 향기를 품어 나누는 사람

(요한 12:1~8)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마리아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이 향기로운 이야기는 다채로운 대비와 역전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하느님 나라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권력과 재력의 썸이 빠른 '남성'과 겸손하고 넉넉한 '여성'이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차갑고 인색한 돈과 방안을 부드럽게 휘감는 향유의 대비가 뚜렷합니다. 위에서 힘을 부리는 이들을 내려 앉히고, 아래에서 섬기는 사람을 올려 함께 나누려는 의지가 선명합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와 희랍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구약성서에서는 특별한 사람을 뽑아 왕과 예언자, 사제들을 세우며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치적인 업적이 분명한 지도자를 '메시아'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기름을 붓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입니다.

신약의 복음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구약의 왕이나 예언자나 사제와 같은 권력과 행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그런 지위에 있던 이들과 불편하게 대결합니다. 기름 붓는 장면도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람은 당시에 신분 낮은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것도 일 년의 수고와 땀을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분량의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한 생명을 어루만지고 감사하며 축하하려는 마음때문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 향기는 자기 혼자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그 집에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향기의 시간과 공간에 감싸여 다른 이들과

서로 연결되고 함께 삶을 즐깁니다.

현장에 있던 '남성' 제자 가리옷 유다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발에 부어버린 향유 값이면 가난한 사람을 여럿 도울 수 있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돈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고민이 어찌면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런 즉각적인 해결과 효율성이 지배하는 문화를 경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기 쉬우며,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성과에 집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오해와 다툼이 잦아지며 비난과 요구가 더 완고해지고는 합니다. 급기야 서로 멀리하고 피하는 '썩는 냄새'를 풍기는 일로도 변질됩니다.

오늘 향유 사건이 일어난 무대는 과일절을 앞둔 '만찬장'입니다. '썩는 냄새'가 나도록 부패한 라자로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그 회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갖 수고와 땀으로 맺은 향기를 아낌없이 봉헌하는 성찬례의 잔치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을 모아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향기를 다른 이들의 머리와 얼굴, 손과 발에 넉넉하도록 듬뿍 부어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구원을 축하하는 성찬례에서 신앙인은 서로 섬기며, 이 세상의 메시아/그리스도로 일어섭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서로 기름 붓는 이들로 세워주고, 겸손하게 기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함께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와 세상을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 하느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회장 김종희 요셉

사제회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에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람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 전례와 사목

## 1. 사순절기 전례 안내

- ◆ 평일성찬례 - 사순1주간부터 매일 오전 6시 30분 (성전)  
정성을 다해 매일 성찬례를 봉헌해 주시고,  
단체별로 지정된 요일은 꼭 함께 참여하여 주십시오.

- 월요일 - 교회위원회
- 화요일 - 나옴교회, 베드로회
- 수요일 - 모니카회, 안드레회
- 목요일 - G.F.S.
- 금요일 - 엑술타테회, 유빌라테회
- 토요일 - 교사회, 청년회, 성가대

## ■ 알림

## 1. 4월 정기 교회위원회

오늘 (4월 3일) 오후 12시30분 성전에서.

## 2. 연중 봉헌 서약 접수

봉헌서약서를 연중 접수합니다. 봉헌의 신앙에 관한 안내문을 잘 읽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사순절 신앙 훈련: 마음 - 집안 - 성당 청소

사순절을 전례와 기도로 보내는 것과 같이, 자신의 집과 더불어, 부활을 준비하면서 각 단체방의 정돈과 청소 일정을 마련하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성공회 성가책 판매

주일 성찬례와 전례 중에 사용할 개인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기도서와 같은 크기이며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성가를 사용하고 전례 중에 찬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정가 2만원입니다.

## 4. 사순절 기도서 판매

선교교육국에서 발간한 <말씀과 이콘과 묵주로 드리는 사순절 기도>로 사순절 기도 생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와 이콘 카드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당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정가 3천원, 2권 5천원.

## 5. 제단 꽃 봉헌 요청

사무실 앞에 신청표에 봉헌하시는 분의 성함과 원하시는 날짜 그리고 내용을 쓰시고 봉헌해 주십시오.

## ■ 활동단체 소식

##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 교우 소식

## ◆ 생일을 축하합니다

유호애(4일) 이광자(마리아)(5일) 김문자(9일) 김유현(12일)

## 부활 성삼일 전례

## 성주간 월-금요일(4월 11일-15일)

오전 6시 30분 십자가의 길 예식

## 성 목요일(4월 14일)

오전 6시 30분 십자가의 길 예식

오후 8시 세족례, 성체제정 기념 성찬례

## 성 금요일(4월 15일)

오전 6시 30분 십자가의 길 예식

오후 8시 주의 수난 예식 (장엄기도, 십자가 경배)

## 성 토요일(4월 16일)

(침묵의 토요일) 오전 예식 없음

부활전야 오후 8시 부활밤 예식

(빛의 예식·말씀의 전례·세례언약갱신·성찬의 전례)

## 부활 대축일(4월 17일)

오전 9시 성찬례

오전 11시 성찬례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 십일조·월정현금

고흥 고아랑 구균하신부 김난희 김종희 박영수 박해웅 서남철 송미경 유해상 이복련 이순경 이용해 전병도 조진성 주낙현신부

## ■ 주정현금

김경아 김삼홍 김요한 박남미 박성준 서정민 송미경 유희주 윤영옥 이경희 이성빈 이정숙 전병도 정명옥 주창남 주창순 한부순

## ■ 감사현금

김민숙(자녀혼배) 김예담(생일) 윤용환(생일)

이정숙(여행) 조진성(부친별세)

사순 박영수 변금숙 서남철 송미경 신환중 유해경 이종한 주경심 무명36명

## ■ 기타현금(미사 예물·주일학교·학생회 등)

## 목적 현금

■ 나눔의집 이복련

■ 예수사랑 이복련 김난희

■ 온라인선교 이복련

■ 여성선교 이복련

##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 십일조(월정현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 사순절 신앙 훈련

### 마음 청소, 집 청소, 성당 청소

사순절기가 두 주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는 40일의 신앙 훈련 시간을 곧 마무리합니다.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잘 준비하고 있는지요? 일상에서 손님을 모실 때도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모실 집과 장소를 깨끗하게 마련합니다. 우리 삶의 주님을 모시는 일에는 더욱 마음을 써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등포 성당은 이번 사순절기를 마음 청소, 집 청소, 성당 청소의 기회 삼아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아침 미사와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마음을 닦아 주님을 모실 자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참에 집도 정돈하여 화사한 봄 햇살을 집에 담고 있습니다. 성당을 아름답게 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 성당에 오는 교우들을 환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의 신앙을 되새겨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청소** - 사순절 신앙생활의 기본은 마음에 남겨진 감정의 찌꺼기를 치우는 일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버려야 할 쓰레기가 나오듯이, 마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 섭섭하고 서운한 일은 물론이요, 기쁨과 즐거움도 한 번씩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을 치워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사 참여와 기도 생활이 그 좋은 방법입니다.

**집 청소** - 봄맞이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집 청소입니다. 좁은 집을 넓게 쓰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값비싼 주거 공간을 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짐을 비워 환하고 넓어진 집은 청소와 정리하기에 쉽고 마음마저 가벼워집니다. 돈도 절약하고 집도 넓게 쓰는 지혜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주는 마음의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성당 청소** - 성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 예배하고 구원의 축하 잔치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당은 언제나 '자신이 사는 집보다 정갈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당의 여러 공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슬쩍 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당의 불편함과 지저분함도 참아내고 눈감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정갈하지 않은 곳에 주님을 모시는 일은 부끄럽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신자를 초대하는 일은 민망합니다. 성당은 주님의 얼굴이요, 우리 신자들의 옷차림과 같은 곳입니다.

곧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단장합시다. 머물고 쉬는 집을 정갈하게 정리합시다. 하느님을 만나는 성당을 아름답게 정돈합시다. 사순절기의 막바지, 우리 영등포 성당의 귀한 신앙 훈련입니다.

#### † 기도해 주세요 †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19를 넘어 일상회복을 위하여
- ◆ 대선 이후 사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 ◆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 가정을 위하여

- ◆ 사순절기 동안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화

#####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 입당 타종시 모두 일어섭니다.

\* 사목단이 제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모두 앉아 대연도를 드립니다.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http://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대연도 (앉는다) ..... 성가 90장 ..... 다함께  
정심기도 (생략)  
죄의고백 (생략)  
기리에 (A곡) (선다) ..... ✠ 246 / ♪ 68 .....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 집전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어 주님의 수  
난을 예비한 여인을 칭찬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모든 것을  
봉헌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이다. 아멘

1 독서 (앉는다) ..... 이사 43:16-21 ..... 말은이  
시 편 ..... 시편 126편 ..... 다함께



- 주께 - |서 사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 꿈이든가|생시|든 - 가! -
- 그 날 우리의 입에서는 함박 같은|웃음|터지고  
○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흘렀|도 - 다. -
- 그 날 이교 백성 가운데서 들려 오는|말소리,  
○ “놀라와라, 주께서 저 사람들에게|하신|일 - 들!” -
-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하셨|으니  
○ 우리는 얼마나|기뻐|던 - 가. -
- 주여, 저 네겍 강바닥에 물길|돌아|오듯이  
○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데려|오 - 소서. -
- 눈물을 흘리며|씨뿌|리는 자,  
○ 기뻐하며 거두어|들이|리 - 라. -
- 영광 -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 - 멘 -

2 독서 (앉는다) ..... 필립 3:4하-14 ..... 말은이  
복음서 (선다) ..... 요한 12:1-8 ..... 말은이  
설교 (앉는다) ..... ..... 말은이  
사도신경 (선다) ..... ✠ 250 .....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생략)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선다) ..... ✠ 287 ..... 다함께  
봉헌성가 ..... 506장 ..... 다함께  
예물기도 ..... ✠ 287 .....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A곡) ..... ✠ 257 / ♪ 71 ..... 다함께  
마침영광송 ..... ♪ 64 ..... 다함께  
주의기도 ..... ✠ 269 / ♪ 65 ..... 다함께  
성체나눔 ..... ✠ 269 .....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A곡) ..... ✠ 270 / ♪ 72 ..... 다함께  
영성체 (앉는다) ✠ 270  
영성체 성가 ..... 512장 ..... 다함께  
영성체 후 기도 (선다) ..... 다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십자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아무 것도 자  
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이다. 아멘  
광고 (앉는다) .....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 ..... ✠ 288 ..... 집전자  
파송 ..... ✠ 272 ..... 말은이  
파송성가 (선다) ..... 483장 .....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4월 3일)		다음 주일 성찬례 (4월 10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수난 복음	
1독서	서정민	김예중	서정민	박계자
2독서	우영현	이복련	우영현	이성빈
대 도	-	-	신명식	신환중
십자가	박해웅	이종한	박해웅	이용해
다음 주일 4월 10일	전례독서 이사50:4-9상   시편 31   필립2:5-11   루가 22:14-23:56 성 가 입당 203장 봉헌 189장 영성체 198장 파송 193장			
교 회 청 소	4월 9일 G.F.S 1조 정명옥 고아랑 김민숙 문해화 오현희 박은영 이윤나		4월 16일 G.F.S 2조 이난희 송미정 송미경 강수옥 이은미 김경아	